

# 건강 상담실

▶ 이번호 해답자 / 가나다 순

국 **홍 일** 이화여대 피부과교수·의박  
 박 **희 옥** 박희옥 산부인과 원장·의박

## 발가락이 몹시 가려운데 담배물에 담그면 낫는가

**문** 저는 금년 32 세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다음 아리고 2년전 부터 발가락 전 사이가 몹시 가려워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좋은 약은 무수히 구입 치료 하였으나 약품 사용할때는 정신적으로 시원하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60대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배가 울어난 물에 담그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하지요. 또한 가족에게 전염은 안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아주 심한 무좀으로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현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내 상월곡동 송 기만〉

## 가정요법 습진 일으킬 우려 건강잡지 8월호 참고토록

**답** 귀하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증상은 무좀인데 확인을 할려면 무좀부위에서 곰팡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좀의 임상증상은 귀하

처럼 발가락사이가 짓무르거나 갈라지는 상태가 있고 발바닥이 두꺼워지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발바닥등에 물집이 생기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신발독이나 한포진, 농포성 진성등의 질환과도 구별하기가 힘들니다.

무좀의 가정요법은 많이 있으나 피부에 자극만 줄뿐 별 효과가 없고 그런 민간요법에 의해서 습진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발을 깨끗이 닦고 건조하게 노력하시고 「건강」잡지 8월호를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간단한 가정요법을 말씀드리면 과망간산가리를 물에 오천분지일이나 일만분지 1을 희석해서 1일 2·3회, 1회 20분정도 담그는 요법이 중요합니다.

〈국 홍 일〉

## 처녀인데 허리가 아프다 신장에도 이상 없다는데

**문** 안녕하세요?  
 저는 27세의 처녀입니다. 3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비뇨기과에 가서 소변검사를 했더니 포

도 상구균이라기에 약을 먹고 완치되었는데 그후부터 계속 허리가 아프고, 아래 양쪽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소변양이 줄어 신장염인가 해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아픈지 선생님의 상담을 듣고 싶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포항시 용흥동 강 정애〉

## 내과 진찰부터 받아 보도록 종양등 여러가지가 의심 돼

**답** 요통은 정형외과적인 질환일 경우가 태반인데 산부인과적인 진찰을 요할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처녀이기 때문에 정식 산부인과진찰은 못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진찰해서 구조상의 이상이라던지 또 종양류(=혹)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통도 꼭 산부인과적 질환이라 볼수는 없지만 비뇨기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내과적 진찰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는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녀들은 산부인과 진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간혹 난소에 난종같은 것이 생긴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심한 복통이 있을 후에 진찰하여보면 선천적 난소 난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할것은 세균성 염증을 제외할 수 없으니 문의취차로 봐서 부인과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 희 옥〉